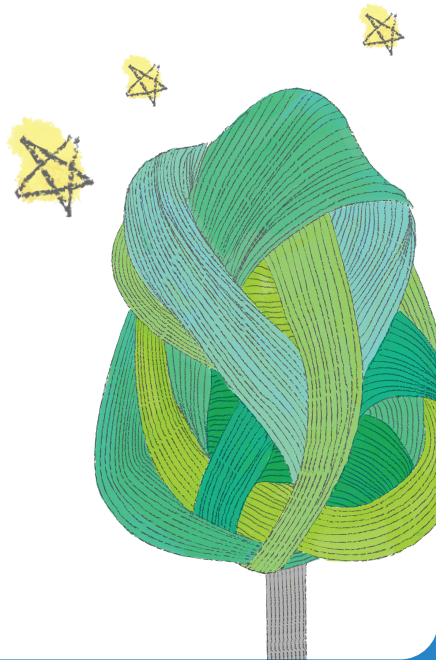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치요령

1. 사이버폭력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2. 자녀가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
3. 피해를 당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준다.
4.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한다.
5.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
6.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7. 사이버폭력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한다.
8.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과정을 확인한다.
9. 지속적으로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관찰하고 자주 대화를 나눈다.
10. 피해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부모도 함께 참여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관

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 * 위센터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or.kr
-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 국번없이 1388
- *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 국번없이 117

민원 및 상담기관

- *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www.jikim.net/sos / 1588-9128
-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www.mogef.go.kr / 국번없이 1366
-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ww.iapc.or.kr / 1599-0075
- * 청소년전화 1388.kyci.or.kr / 국번없이 1388
- * 한국자살예방협회 www.suicideprevention.or.kr



알아두면 좋아요 신고할 때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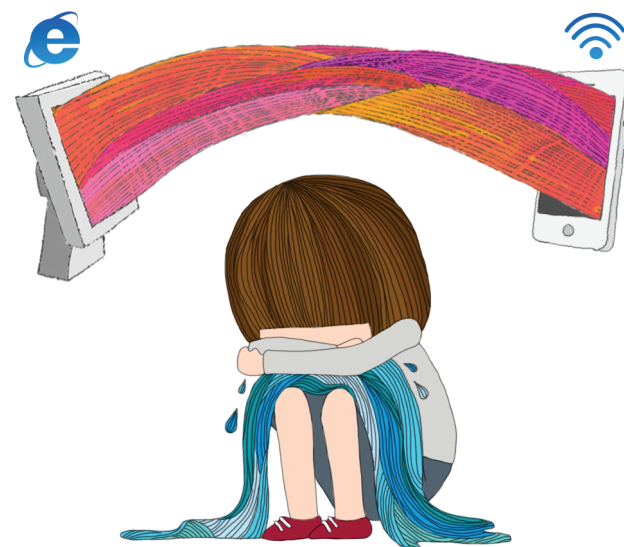
가까운 경찰서 방문신고

- *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 <http://cyber112.police.go.kr>에서
민원/민원서식/수사를 차례로 클릭)
-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하여 수사과 사이버팀에서 접수 당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피해경위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
가지고 가시면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고

- * 사이버폭력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 접수 후 대부분의 수사과정에서 신고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있으면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출석,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없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사이버폭력의 이해와 대처 요령

☑ 청소년 사이버폭력 알아보기

사이버폭력이 뭐예요?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 등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과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 왜 문제인가요?

사이버상의 폭력은 “청소년기에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갈등”이라거나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실제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폭력으로 자살 충동

A(중1, 가해학생)양은 B(중1, 피해학생)양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뺨살’, ‘찌질이’라고 놀리면서 댓글**을 다는 등의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B양은 자신감을 상실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소외감을 느끼고 자주 죽고 싶다고 함.

(학교폭력 SOS지원단 상담사례 발췌)

카톡 왕따로 여고생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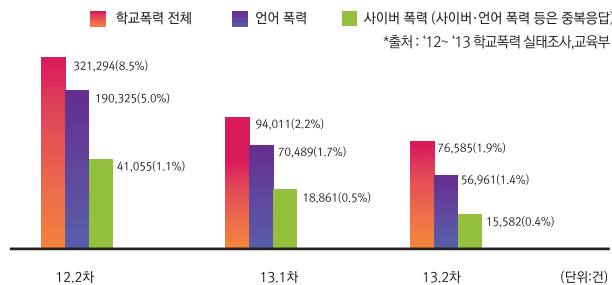
서울 O고등학교 1학년인 강모(16)양은 8군 등 5개 학교 10여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으나 “**맞아야 정정차릴 년**”, “**00년**”, “**0년**” 등의 욕설을 들은 후 자신의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음.
(한겨레신문, 2012년 8월17일)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 인가요?

정부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

사이버 괴롭힘 피해응답자 : ('12.2차) 41천명 → ('13.2차) 16천명
언어 폭력 피해응답자 : ('12.2차) 190천명 → ('13.2차) 57천명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정보·의사소통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감금 등 다양한 신종 사이버 폭력 피해 발생

신종 사이버폭력의 유형 *출처: '13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봉섭

사이버 갈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감금: 인터넷 대화방, 스마트폰 메시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거나 계속 불려서 비방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와이파이 셔틀, 게임 셔틀 등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방과 후, 가정, 학원 등 시·공간 제약없이 지속되며 따돌림, 악성댓글, 허위소문 유포 등 다양하게 발생
- 신체폭력에 비해 또래관계를 형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적 폭력이 심리적 및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큼
-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82.3%가 '힘들다'고 응답(평균 71.6%)
- 대상의 이름 대신 상황을 언급하거나 익명성을 이용해 괴롭히는 등 폭력의 형태가 은밀해지고 교묘해짐('14.2 학생대상 심층면접)

! 자녀를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수칙 10계명

1.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준다.
2. 평소 대화 통해 자녀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3. 자녀와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한다.
4.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5.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해놓는다.
6.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 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7.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과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 서비스를 설치한다.
 - ※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
컴퓨터 : (greeninet.or.kr)
스마트폰 : 스마트보안관 (스마트보안관.kr)
 - ※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서비스
모바일 가디언 : <http://www.mguardian.co.kr>
8.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다.
9. 사이버 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 조력 기관을 알아 둔다.
10.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주변 어른들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